

최악의 자금난 ... 중소기업들 'SOS'

고용 유지 할테니... 정부 지원금 달라

11월 광주·전남 70곳 신청 ... 작년비 7배

불황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해 지난달 광주·전남에서 종업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체는 7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12건)에 비해 5.8배나 늘어난 것으로, 1년 전인 지난해 11월(10건)보다는 7배 가량 급증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로 감원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급전적 지원을 받는 제도다. 지원을 신청한 업체가 급증한 것은 불황 속에서 고용유지 조차 힘

겨운 회사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은 올해 고용지원금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광주·전남에 지원된 고용지원금은 27억2천100만원으로, 1년 전(11억7천300만원)보다 132%(15억4천800만원) 증가했다. 고용지원금은 통상적으로 신청 시기부터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연말로 갈수록 지원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고용지원금 신청 건수는 1천312건으로, 10월(446건)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내년 정책자금 타자” 중소기업단 신청 쇄도

2주 만에 39개 업체 243억 운영자금 호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정책자금(시설·운영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앞다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문을 두들기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는 내년도 정책자금을 지난달부터 미리 접수한 결과 2주동안 20개 업체가 71억6천만원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중진공 전남 동부지부에서 접수한 정책자금은 12개 업체, 137억원, 전남 서부지부는 7개 업체, 35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영삼 광주·전남본부 팀장은 “올 1월에는 전체 신청금액에서 시설자금의 비중이 70%를 밑돌

았는데 이번에는 100%가 운영자금이어서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 광주·전남본부는 지난해 198개 업체에 91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황 팀장은 “인론을 통해 따로 공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신청이 예상 밖으로 많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 비율의 적용을 면제하고 재무평가를 생략하는 등 정책자금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액세서리 같은 MP3

3일 오전 서울 남산(주)필립스전자 본사에서 도우미들이 보석처럼 액세서리로 착용할 수 있고 고유의 음장기품 풀사운드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MP3 플레이어 '필립스 고기어 렉스'와 '필립스 고기어 스피크'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대형소매점 매출 급증

10월 중 광주·전남 1,408억 ... 작년보다 12% ↑

지난 10월 광주·전남은 물가 급등에 따른 경성판매액 증가와 대형마트 신규 입점 등의 영향으로 대형소매점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0월중 광주의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천4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0월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고물가의 여파로

명목상 판매액이 늘어난 데다 할인마트 3곳이 새로 입점한 결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물가 급등에 따라 귀금속 매출이 50% 가량 급감한 반면, 가방, 운동 및 오락용품 등의 판매액이 크게 늘었다. 전남도 대형소매점의 10월 매출은 614억5천만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1년새 마트 2곳이 입점한 가운데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하지만 전남은 전달인 9월에 비해 선 대형소매점 매출이 20.9%나 줄었다. 경기 둔화와 금융위기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 매출의 52%를 차지하는 음식료품 소비가 28%나 줄었다. 전국의 경우도 불황에 따른 소비활동 둔화세가 뚜렷했다. 10월중 전국의 소매판매액은 20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느는 데 그쳤다. 이같은 증가폭은 2007년 1월(-0.4%) 이후 21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 물가 상승 요인을 제외한 불변금액 판매액은 18조5천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나 줄어 두 달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서남권 경제 '숨통'

'C&중공업 워크아웃' ...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500여 협력·부품업체 줄도산 위기 넘겨

C&중공업에 대한 워크아웃이 결정됨에 따라 일단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전남 서남권 경제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협력업체에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진행될 2차 실사와 평가에 따라 생사가 다시 갈릴 수도 있다. 목포시 연산동에 소재한 C&중공업이 대형 조선소인 해남의 대한조선과 함께 전남지역 중형급 대표 조선소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워크아웃 결정은 전남 조선업과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 회생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C&중공업 경영 악화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왔던 500여개 협력·납품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는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현재 C&중공업의 금융권 여신 규모는 총 5천503억원이며 총 채불금은 20억6천만원, 선박건조비 398억6천만원 등 총 728억2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불산단 내 입주기업 15개소 30억원에 비하면 조선소 매립비와 콜리엇 크레인·도장공장 건립비 등과 관련된 전남지역 기업들의 피해규모는 200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협력업체 20개사와 납품업체

300여개사도 지난 9월 C&중공업의 선박건조 중단 이후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려 연쇄도산이 우려돼 왔다. 따라서 C&중공업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중단된 선박건조가 가능해졌고 이에 힘입어 700여원에 달하는 협력·납품업체 채불금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잠재된 서남권 지역경제와 조선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불금은 협력·납품업체와의 관계로 발생한 것이므로 워크아웃이 진행될 선박건조가 시작되면 현재 바다난 자금 유동성이 원활해져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정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워크아웃에 따라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협력업체 구조조정도 병행될 수 있다. 또 자산과 부채에 대한 2차 실사와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가치가 청산가

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자금지원이 이뤄지지만 청산가치가 커 채권단이 경영정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나 3자인수,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힐라, 유럽풍 스키 웨어 신제품 판매



까지 진행되는 할인행사때 구입하면 30% 싸게 살 수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힐라코리아는 스키시즌을 맞아 유럽의 스키웨어 업체인 '이매지(Em-megi)'사와 합작생산한 신제품(샤진)을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은 여성용 스키복 상·하의로 상의는 오렌지·골드·아이보리 등 3가지, 하의는 브라운·블랙 등 2가지 색상이다. 힐라와 이매지 양사의 브랜드를 함께 달아 출시한다. 힐라측은 “거위털을 이용해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뛰어나고 털장식, 호피무늬 안감을 써서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상의가 110만~120만원, 하의는 60만원대다. 힐라 매장에서 오는 7일

새 얼굴

“지역 농식품 수출 상품화 주력”

이 중 경 a(광주·전남)지사장



“위기의 개방시대에 대비해 광주·전남지역의 수준높은 농식품을 가능한 많이 발굴, 수출상품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일 새로 부임한 이중경(53) a(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장은 “올해부터 농수산물의 미래 성장동력을 수출에서 찾으려는 농민수산물품부의 정책에 맞춰 기존의 상품중심 수출에서 식문화가 연계된 수출로 확

대·개선해 수출 드라마 이브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출신으로 중앙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지사장은 지난 82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입사한 뒤 법무지원부장, 수출홍보부장, 식품수출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인베스트 경매컨설팅' (Investment Auction Consulting) in Gwangju.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62)236-0900 and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푸른산테크빌' (Blue Mountain Tech Villa) in Gwangju.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it as a 11-story apartment complex with 160-820 sqm units.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Tel: 061-393-2901/3, 393-7855/7 and Fax: 061-393-2230.